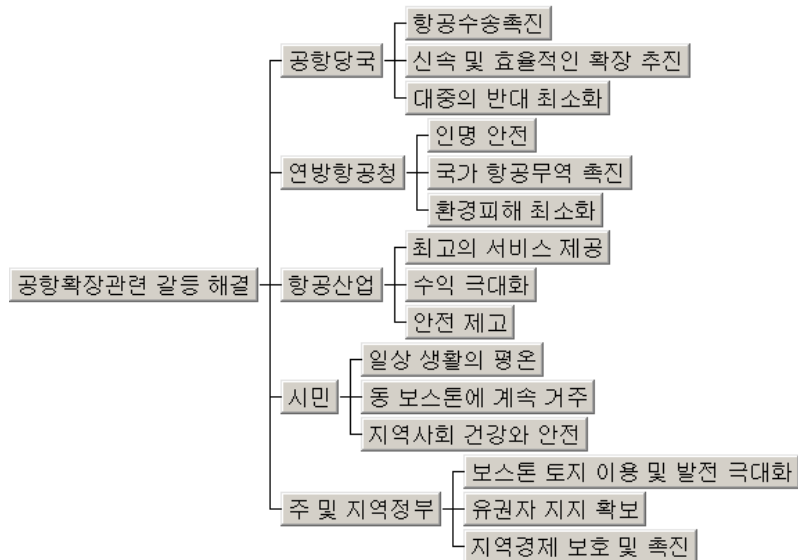


공항확장 관련 갈등 해결

동 공

보스톤에 있는 로간 국제공항은 매일 800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세계에서 8번째로 붐비는 공항이다. 공항의 주주는 Massport(Massachusetts Port Authority)로써 세금 면제채권을 발행하여 운영되는 공공자치단체이다. Massport의 확장 프로그램이 40,000명의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소음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이해관계자는 공항당국, 연방항공청, 시민, 항공산업, 주 및 지역정부 등이다. 공항당국은 공항위치의 선정, 토지수용 및 활용, 공항 디자인, 스케줄링,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항공무역에 해가 되는 조치와 공항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방항공청은 활주로와 항공로의 이용을 규제하고, 성과기준과 장비요구사항을 정하며, 항로를 통제하고,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한다. 항공산업체들은 고객유치에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운영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항공수송 규제에 대한 사실상의 전속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 및 지역정부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소음원에 대한 규제는 더 조용한 엔진이나 엔진 포장의 방음처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큰 폭의 운영비용 상승을 초래하므로 대규모의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공인된 양력장치 사용이나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활주로 시스템 등과 같은 운영기술과 야간비행 금지는 안전을 해치고 작업량과 스케줄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치료의 효과를 갖기보다는 사전 규제의 성격을 갖게 되어 상당한 지역사회 붕괴나 개발의 제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안
소음원 규제
토지이용 규제
새 운영기술 도입
야간비행 금지

이 자료는 <http://imakeit.kr/info> 에서 내려받은 자료입니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디시전사이언스의 문서에 의한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복제, 전재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합니다.